

The Function of Public Library Coping with Social Change

産業社會에 對處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 (上)

玄 圭 變  
國立中央圖書館

目 次

1. 序
2. 知識産業社會의 台頭
3. 韓國社會의 構造的 變化
4. 社會的 變動의 趨勢
5. 社會變動에 對應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이하 次號에 繼續)
6. 結 一戰略的 主要計劃의 必要性

1. 序

이 序文의 目的은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社會의 構造的 變化와 文化變遷에 對應하도록 하는 몇가지 方向을 設定하려는 試圖로서 作成된 것이다. 이러한 試圖는 社會變動이라는 深대한 範疇를 몇가지 單純化된 要素로 分析하고 이를 特徵짓는 構造的 特色 및 變遷方向의 把握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않된다. 그러나 이러한 定立은 多樣하고 複合的인 社會變動의 基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認知(Pattern Recognition)가 극히 어렵다는데에 커다란 問題點이 생기게 된다. 다음으로 公共圖書館의 機能에 對한 올바른 分析과 그 概念의 定立 즉 定義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點이다. 勿論 이미 많은 聲明書나 宣言 등이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所見으로는 그들은 극히 非彈力的인 것 들일 뿐만 아니라 時代的 與件과 그 地政學의 要素가 전혀 作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결코 決定的인 要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難題를 解決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無理한 것이 될 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接近 즉 社會變動에 立脚한 公共圖書館의 機能의 定立化라는 作業은 연 續的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課題라고 생각된다. 여기 에 본 序文을 作成하게 된 動因이 있다.

먼저 이미 이룩된 많은 社會學의 貢獻中 最近 널리 알려진 몇가지 概念을 導入하고 그의 分析에 基礎하여 公共圖書館機能의 設定方向을 模索한다. 다음으로 이

렇게 導出된 機能과 이미 宣言된 몇개의 公共圖書館機能을 간단히 對比하고 끝으로 筆者의 短見으로 세워 본 몇가지 戰略的인 計劃의 必要性을 提示한다. 다만 여기 에 提示된 諸 概念과 方向의 設定은 基本的인 座標 만을 設定하고자 시도된 것임을 밝혀둔다.

한가지 附言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에 題目中에 使用 된 産業社會라는 用語는 社會發展段階에 의한 限定된 뜻에서 使用된 것이 아니라 産業을 基盤으로 하여 變 遷되는 社會全般을 가르킨 것이다. 實上 지금 우리 주 변에 범람하고 있는 情報社會라는 개념은 明確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시된 定說로는 그렇 다는 것이다. 後章에서 言及되었지만 Fritz Machlup의 知識産業社會가 그러한 뜻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엄 격한 크라이테리아가 제시되어 있다. 어찌되었던 만일 Machlup의 뜻과 同一하게 使用된 것이라면은 여기에 論點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포함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2. 知識産業社會의 台頭

經濟成長理論으로 著名한 W.W. Rostow는 世界各 國의 經濟成長模型을 分析하고 그 發展段階의 類型을 大體로 다음의 다섯가지 段階로 區分하여 成長模型을 定義한 바 있다. (註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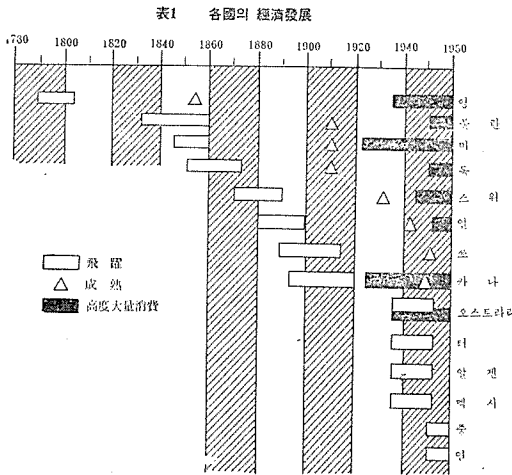
- 1) 傳統의 段階—이 단계에서는 産業社會가 존재하지 않으며 原始的인 農耕時代가 해당된다.
- 2) 過度의 段階—農業生產力의 增大 및 社會資本이 增大되며 工業의 需要가 增加하고 광범한 Nationalism 이 形成되는 時機이다.
- 3) 飛躍段階—農業의 二次産業化, 産業革新의 成熟, 國際規模의 經濟의 關係가 이룩되기 시작한다.
- 4) 成熟段階—國家別로 戰略的인 産業이 確定되고 産業의 새로운 技術의 改革이 이룩되며 第一次産業과 二次産業間의 간격이 넓어지고 보다 後者의 比率

1)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2 참조.

이 增加한다.

5) 高度大衆大量消費時代—第三次 産業이 台頭되고, 各種 Service業의 經濟的意味가 增大된다.

Rostow의 5段階 發展模型을 實際로 世界各國의 成長過程에 適用시켜 본다면 表 [1]과 같다. 大體的으로 1920年代부터 1945년에 이르는 期間에 英國, 佛蘭서, 미국, 캐나다 등이 成熟의 단계를 넘어 高度大衆消費 社會로 進入하고 있다. 朝鮮은 1950年代까지 아직 成熟段階에 있으며 반면 오스트리아는 飛躍段階와 高度消費段階가 同時에 들어오고 있다. (表 1 참조)



이러한 발전모형은 高度大衆大量消費時代가 社會成長의 最終的段階로 設定되어 있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 이르러 大量消費社會의 다음 段階에 나타나는 社會的 特徵에 社會學者들은 많은 觀心을 기울여 왔다. 그 중 우리 圖書館이 注意를 기울여 두어야 할 만한 學者로서는 먼저 Fritz Machlup를 들 수 있다. 그는 1962年 그의 著書를 통하여 現代의 經濟的 發展은 크게 그 社會的 産業의 構造를 變革하고 있으며 이들 變化된 社會를 知識産業社會라고 糾明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註 2) 이 社會의 構造的 特徵은 知識情報가 그 社會의 發展의 條件에 必須不可缺한 것으로 台頭되며 知的技術이 그 社會의 支配의 作用力이 되는 社會的構造를 갖게 되는데에 있다. Machlup는 이러한 社會가 되는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一定한 水準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1) 教育—學校教育뿐만 아니라 成人教育등 광범한 水準의 教育이 이룩되어야 한다.
- 2) 研究開發—基礎研究와 應用研究에 대한 投資比率이 國民所得과의 比率에 있어 높아야 한다.
- 3) Communication Media—신문, 출판물, T.V., 라디오 등 通信裝置의 設置數가 一定水準에 이르러야 한다.

4) 情報處理機械—컴퓨터를 포함한 정보처리기계의 설치수가 水準에 도달되어야 한다.

5) 情報서비스業—專門的인 情報서비스業의 社會的 構成비가 增大된다.

이러한 Machlup의 概念은 Daniel Bell 教授에 의하여 더욱 具體的으로 展開된다. (註 3) 그는 現代 새로운 性向을 띄우고 나타나는 社會를 Post Industrial Society란 用語로서 定義하고 그 構造的 特徵을 다음과 같이 指適하였다. 말하자면 이 社會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가지 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1) 서비스經濟가 創出된다.
- 2) 專門職·技術職 階層이 社會的 構造的 階級가 이루어진다.
- 3) 理論的知識이 中心的 役割을 한다.
- 4) 自立的인 技術成長이 可能하게 된다.
- 5) 새로운 知的技術이 創出된다. (註 4)

우리는 이들 두 學者의 概念을 고루 整合하여 새로운 台頭되고 있는 社會의 特徵을 整理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客觀的으로 可測性 있는 要素로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 1) 研究開發(R&D)의 程度—國民總生產費와 研究投資費의 比率로 定한다.
- 2) 專門的·學術階層의 形成—知的職業群과 全人口와의 社會階層의 構成比率로 定한다.
- 3) 教育의 程度—總人口(학령인구)와 教育人口와의 比率로 定한다.

둘째로는 所謂 情報化係數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 1) 新聞發行部數
- 2) 書籍發行部數
- 3) T.V, 라디오의 보급수

表 2 美國의 職業인구 百分비

Year	농업인구 (%)	제조노동인구 (%)	전신노동인구 (%)
1900	37.5	44.9	17.6
1910	30.9	47.7	21.2
1920	27.0	48.1	24.9
1930	21.2	49.4	29.4
1940	17.4	51.5	31.1
1950	11.8	51.6	36.6
1959	9.9	48.0	42.1
1964	6.3	36.3	44.2 (a)
1970	3.9	33.7	48.3 (a)

2) Fritz, Machlup.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 Press, 1962. p. 20—22.

3) Daniel Bell. The Measurement of knowledge and technology in Indicator of Social Change. Russell Stage Foundation, 1968.

4) Machlup와 Bell의 定義는 兩者가 서로 同一한 것이 아니라고 논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學者들의 개념 논쟁으로서 우리가 볼 때에는 두 개념의 차이점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4) 電話의 普及數

5) 컴퓨터의 設置數 등이 一定한 水準에 올라 있게 된다.

셋째로 可測性이 없는 것으로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1) 知的技術의 創出程度

2) 自立的 Technology의 程度

以上の 諸項을 보면 知識産業社會가 갖는 構造的 特徵 및 社會의 能力的 差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Daniel Bell이 實證的으로 指適하고 있는 Post Industrial Society의 外的 特徵을 簡單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닥아올 社會를 상상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社會의 變化를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Bell 教授는 美國의 社會的 變化를 注意깊게 분석하고 1956년과 1959년의 3年間을 그가 主張하는 脫工業社會의 始發點으로 指適하고 있다. 이 期間에 美國의 社會構造는 다음의 세가지 點에서 顯격한 變化를 거쳐 왔음을 지적하였다. (註5)

첫째로 職業分布比率의 變化이다. 職業群은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9년에 이르러 육체노동의 직업군과 정신노동의 직업군이 同等한 配分比率를 갖게 된다.

말하자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정신노동자가 그 社會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時機를 始發點의 첫 徵象으로 본다 는 것이다.

둘째로는 1959년대에 가서 研究開發費가 全國民總生産額(G.N.P.)에 比하여 2.5%를 차지 하기 시작한다. (참고 表 3)

表 3 研究開發費의 比率

年 次	美 國	
	연구개발비	G. N. P.
1962	562 (백억원)	2.8%
1963	626	2.9
1964	691	3.0
1965	738	2.9
1966	853	3.1

셋째로는 高等教育의 學生數가 適齡人口의 比率로 보아 36%가 되는 時點이 된다. 즉 고등교육을 받아야 할 全人口中 36%이상 이 大學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社會構造를 갖게 되면 必然的으로 情報産業(Information Industry)이 形成되게 되고 이 産業을 흔히 三次産業이라고 말하고 있다.

表 4 美國의 高等教育 在學生數 比率

年	在 學 生 數	同令人口對比
1957	3,036,938	34.3
1959	3,364,861	36.6
1961	3,860,643	37.7
1963	4,494,626	40.4
1964	4,950,173	43.9

3. 韓國社會의 構造的 變化

韓國은 1962년부터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지난 10여년간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物量의인 增加現象을 실현하고 있다. 表(5)에서 우리는 1962년에 뛰어 오른 數値와 1969년에 5倍以上의 增加가 이루어져 있음에 注目을 끌게 될 것이다. (註 6) 이러한 經濟的 成長은 工業産業社會를 指向하는 政府의 強力한 政策과 中進國의 隊列에 參加하려는 多角의인 資本의 投資에서 結果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表 5 韓國의 국민총생산액 단위 : 10억원

年 度	국민총생산액	年 度	국민총생산
1957	197.78	1966	1,032.04
1958	207.19	1967	1,242.35
1959	221.00	1968	1,575.65
1960	246.69	1969	2,030.14
1961	296.82		

한편 社會의 構造的 側面에 있어서도 必然的인 變化를 갖어 왔다. 우리는 第2項에서 보았던 知識産業社會의 特徵을 들어 우리의 變化를 比較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職業分布比率를 살펴 보자. 먼저 農水産部門에 屬하는 人口는 1963년부터 서서히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表(6)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반면 社會間接資本部門과 서비스部分의 就業者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1967년에 이미 32.0%에 도달되고 있으며 이는 美國의 1940年代의 職業分布比率와 같은 것으로서 이 時機에 미국사회는 Rostow가 지적하는 高度消費社會에 進入하고 있음을 表(1)과 (2)를 比較하여 알 수 있다. (註 7) 그런데 이 당시의 美國의 農業人口는 17.4%에 不過하였고 工業部門의 人口는 51.6%에 達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韓國의 職業分布比率는 기형적으로 發展되어 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5) Daniel Bell. ibid. p.18 참조.

6) 경제계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년감. 서울, 同院 1973. p.71 및 1970年度分.

7)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開發(第一輯, 基本構想) 서울, 보건사회부, 1968. p.133 참조.

表 6 韓國의 産業別就業者 및 構成比

년도	취업자계	농업·수산	광 공 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1963	1,947	63.2%	8.7%	21.1
64	8,210	61.9	8.8	29.3
65	8,522	58.7	10.3	31.0
66	8,659	58.2	10.8	31.0
67	8,914	55.3	12.8	32.0

둘째로 研究開發費의 國民生産額에 對한 配分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分野는 아직 研究하기 爲한 充分한 調査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大體的으로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4%에 不遇하여 매우 저조한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日本은 1945—1950年間に 이미 0.9%의 연구개발비를 支出하였고 1960년에 1.0%를 초과하지 시작하였다.(表 8)

表 7 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單位: 100만불

구분	국별	미국 (63)	영국 (65)	프랑스 (63)	서독 (64)	일본 (63)	한국 (67)
연구 개발 투자		21,323	2,159	1,299	1,436	892	20
지수(미국을 1,000)		1,000	101.3	60.9	67.3	41.8	1.0
對 G. N. P.		3.4	2.3	1.6	1.4	1.5	0.4

셋째로 教育水準은 1969년에 學령인구에 比하여 34% 그리고 1986년에는 전 學령인구에 比하여 42%로 이미 34%以上에 도달되고 있다.(註 8) 이것은 美國의 1968年度에 해당되는 水準으로서 教育水準만을 가지고 본다면 脫工業社會의 進入水準 以上이 되고 있다.

表 8 진학률 향상추세 (단위: %)

구분	년도별	1969	1986
중학교에		62	95~98
고등학교에		70	70~74
대학(교)에		34	34~42

(문교부 장기종합교육계획 요약)

韓國의 社會的變化를 이 세가지 要素만으로 分析하여 볼 때(이것만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렵지만) 大體로 다음과 같이 推定할 수 있다. 그간의 經濟的成長은 社會의 外形의 構造 즉 職業分布比率(말하자면 産業構造의 變化)의 變化와 教育人口의 擴大를 招來하였다. 이는 그 外的인 變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反面 研究開發에 對한 投資는 미미하여 實質的으로 內容的인 變化는 이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內的인 變化의 문화현상은 情報化係數라고 불리우는 기타의 諸般要因들에 依하여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선 書籍, 出版物의 生産이 저조하다는 면에서도 그러하거나 新聞, 放送 등의 側面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內容上의 弱點은 結果적으로 知的技術의 創

出力을 弱화하고 自立的인 Technology의 前進을 미약하게 하는 結果를 낳게 하는 것이다.

#### 4. 社會的 變動의 趨勢

前項에서 指適되었던 內容的 變化의 빈곤성은 앞으로 經濟的成長이 성숙하여감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것은 社會가 농업의 의존도를 떠나 工業技術社會를 形成하기 시작하는 초기의 徵候로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必然的으로 社會成長의 方向은 飛躍의 段階를 向하여 變化될 것이며 이時機에 이르러서는 結果的으로 內的變化의 同伴이 强要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우리 社會의 變化에 對한 長期趨勢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人口分布의 動態는 점차 都市人口가 增加되어 갈 것이며 1986년에는 農村의 人口와의 比率이 5:5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註 9) 이러한 人口의 移趨는 社會의 産業의 人口構成費의 結果로 이룩되는 것이다. 韓國의 産業構造는 점차 農業에 對

表 9 도시노동인구의 장기추세

년 도	도 시 인 구	농 업 인 구
1965	32%	68%
1971	38%	62%
1976	41.4%	58.6%
1981	45.3%	54.7%
1986	47.8%	52.2%

한 依存度를 감소하고 第二次産業과 第三次産業에 對한 依存度를 增大하여 나갈 것이다. 1986년에는 농업인구는 현격하게 감소되고 第二次産業部門이 약 50%程度에 到達되리라 展望하고 있다. 第三次産業은 34.8%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表 10참조)

表 10 산업부문별 구성비 추세

산업부문	1966 구성비%	1976 구성비%	1986 구성비%
第一次산업	37.9	27.1	17.7
第二次산업	24.8	40.3	47.5
第三次산업	35.8	32.6	34.8

둘째로 教育部面에 있어서는 高等教育의 進學率이 增大되어 갈 것이며 高等教育履修者의 社會進出 또한 높게 될 것이다. 이들 高等教育을 履修한 者는 結局 研究와 開發分野에 종사하게 될 것이며 그 比率 또한 높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研究開發에 對한 關心은 經濟成長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爲한 한 方法으로서도 더

8) 문교부.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主要統計參考資料(부록 Ⅲ) 서울(1970). p.89. 참조.

9) 保健社會部. 社會開發 ibid. p.132 참조.

속 必要하게 될 것이며 이미 始作되고 있는 試行錯誤 過程의 修正을 爲하여 必然的으로 개척되어 나갈 것이 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고등교육 이수자가 증가 하고 있는 諸分野의 比率이 教育에 比率보다도 研究開 發分野에 월등하게 많이 分布되고 있음에 注意할 必要 가 있을 것이다. (表 1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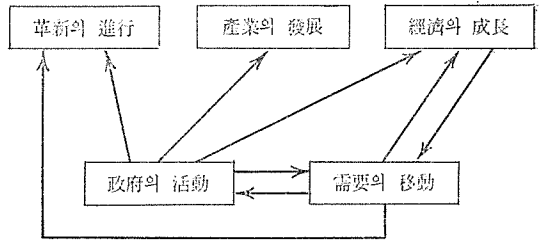
表 11 미국의 박사학위 소유자 분야별 취업 비율

주요직무	비율	주요직무	비율
연구개발	39%	교육	28
기초연구	25	생산	1
응용연구	12	기타	6
경영관리	19	보고없음	3

셋째로 政府의 役割은 더욱 增大되어 갈 것이다. 政府는 技術革新의 主體者로서 또한 經濟成長의 責任者로서 그 作用力은 점차 增大되어 表(12)와 같은 函數의 關係에 놓이게 될 것이다. (註 10)

넷째로 科學 技術系의 人力需要는 점차 증되어 갈 것이며 특히 當분간은 技能職의 人力이 크게 所要될 것이다. 특히 機械工業分野와 纖維工業分野는 많은 人力을 必要로 하게 될 것이다. (註 11)

表 12 政府와 産業과의 關係



한편으로는 情報化係數의 增加가 서서히 合理的으로 調整되어 나가게 될 것이며 特別히 컴퓨터의 設置台數는 점차 각 機關에 따라 증가될 것이다. (註 12)

이상의 諸變化는 結果적으로는 知的技術의 創出力을 유도할 것이며 이에 따른 各種 技術이 土着化되어 갈 것으로 展望된다. (次號에 계속)

10) 竹山正憲. 研究開發と 情報管理. 京都, 高分子利行會, 1965. p.41.

11) 保健社會部. 社會開發 ibid. p.141.

12) 과거처, 중앙전자계산소. 1971年 電子計算機利用實態調查, 서울, 同所. 1971. 739.

「特種記事」

지난 6月 7日字 各 日刊新聞 “特種記事”로서 1面과 文化面에,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總會 76年 서울에서 開催, 參加對象國 北傀, 蘇 등 88國, 北傀, 蘇 등 共產國도 미거 招請, 世界에 投影될 韓國圖書館活動, 亞細亞에서 처음 開催, 文化外交 通한 國威宣揚 契機, 等等」의 題目으로 記事가 실어졌다.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도 이 사실을 그날 뉴스 시간마다 보도했다.

우리 나라의 3大 通信(東洋, 合同, 時 KLA 코너)에서도 정치면과 文化特種으로서 1,500 못지 않게 國家와 社會에 功獻하고 있다는 字以上의 內容記事를 詳細하게 실어 國內外的 言論 機關에 配布되었다.

이렇게 特種으로 報道된 記事들은 北傀, 蘇 등 共產國도 招請된다는 點과 세계의 88個國에서 1千여 명이 參席하게 되는 大規模의 圖書館關係 國際會議가 亞細亞에서는 처음으로 開催된다는 點을 強調하면서 IFLA와 韓國圖書館協會를 소개하는 한편 그 效果說明에 있어서 ①共產國家의 代表들도 參席하게 됨으로 共產國進出을 위한 政府의 6.23시책 추진을 發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②聯盟 88個國

會員國이 모두 參與하게 됨으로 순수한 文化(圖書館) 관계 外交를 通한 國威宣揚을 도모할 수 있고 ③國際간의 理解增進에 效果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가지 點을 특히 강조하였다.

일찌기 우리 나라의 圖書館活動이 言論을 통하여 이토록 크게 크로즈업된 事例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저 책을 保管하고 閱覽시키는 일만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사업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社會의 固定觀念이 이번 特種記事의 報導를 통하여 아마도 조금은 覺醒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적어도 圖書館의 重要性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再認識되었을 것임은 틀림없으리라.

이제껏 우리 圖書館人들은, 어느分野에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先경제 後문화라는 그릇된(?) 觀念에 지배되어 圖書館의 役割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번 特種記事의 報導는, 圖書館事業의 중요성을 한층 크게 부각시켰으나 왜, 그것이 特種記事거리가 되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을 위한 進路開拓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도서관인들 사이에서 再檢討되어 져야 할 것이다. (韓)